

MLB 코리안 원투펀치 출격준비 '박차'

김광현, 22일 시범경기 등판 뉴욕 메츠전... 2이닝 예정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32)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 여부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메츠와 시범경기에 등판한다.

김광현은 12일(한국시간) 주피터 로저 댄 스타디움 훈련장에서 열린 스프링캠프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2일(메츠와) 시범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 경기에 앞서 불펜 피칭과(타자를 상대하는) 라이브 피칭을 한 차례씩 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현은 이날 20m 캐치볼을 시작으로 점점 거리를 늘리며 어깨를 풀었고, 이후 불펜으로 이동해 마이너리그 포수인 호세 구도이와 각종 구종을 점검했다. 그는 약 50개의 공을 던졌는데, 피칭 막판엔 많은 힘을 흘릴 정도로 힘을 쏟았다.

김광현의 첫 불펜 투구에 팀 동료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세인트루이스 심수 명의 선수들은 김광현 뒤에서 그의 불펜 피칭을 살펴봤다.

불펜을 마친 김광현은 "전체 70% 정도는 작구, 30% 정도의 변화구를 섞어 던졌다"며 "피칭 막판엔 80-90%의 전력으로 공을 던진 것 같다"며 첫 불펜 피칭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60개 정도의 공을 던지는 불펜 피칭 한 차례와(타자를 상대하는)라이브 피칭 한 차례를 소화한 뒤 시범경기를 치른다"며 "점점 몸 상태를 끌어올려 최고의 모습으로(선발)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현의 공을 받은 구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왼쪽)과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오른쪽). 연합뉴스

는 "컨트롤과 변화구가 좋았다.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광현의 메츠전 등판은 일찌감치 결정됐다. 메이저리그 관계자에 따르면, 메츠는 김광현과 계약 후 곧바로 시범경기 등판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은 메츠전에서 약 2이닝 정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팀에서 등지를 뜬 류현진(33)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류현진 영입은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스토브리그 최고의 뉴스였다. 토론토 교칭스태프도 류현진의 합류가 반갑다.

토론토선은 12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이번 토론토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을 것이다. 토론토

류현진, 새 팀에 적응 순항중 토론토 코치 '체인지업 기대'

투·포수가 공식 소집하는 13일에도 최고 스타는 류현진"이라고 전하며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워커 코치는 "류현진의 투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정말 기쁘다"라고 운을 폈다. 이어 "류현진은 모든 카운트에서 매우 훌륭하게 대처한다. 매우 빠르게 배우고,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아는 투수"라며 "그와 함께 뛰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류현진의 주 무기 체인지업에 주목했다.

워커 코치는 디에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엄청난 수준의 체인지업을 던진다. 상대 타자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타 허용률도 낮춘다"라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7년 동안 류현진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류현진에게 맡기면 된다"고 했다. 류현진의 장점은 평정심과 계획이다.

2013년 류현진 영입을 주도한 네드 콜레티 당시 다저스 단장은 "22살이던 류현진이 5만5000명의 관중이 모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치른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류현진은 침착하게 투구를 했고, 우리는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워커 코치도 베테랑 1선발 류현진을 예우하면서, 팀 적응을 도울 생각이다.

그는 "류현진이 자신의 계획대로 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며 "스프링캠프 초기에는 토론토 포수들과의 호흡이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둑, 2000년생 신진서 시대 열렸다

20연승으로 LG배 우승 최강 커제·박정환 연파

2000년생인 신진서(20·사진) 9단이 스무살이 된 2020년에 20연승을 달리며 첫 메이저 세계대회 타이틀을 획득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는 12일 경기도 광명시 라카호텔 특별 대국실에서 열린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양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랭킹 2위 박정환(27) 9단에게 16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신진서는 종합전적 2-0으로 박정환을 제치고 LG배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지난 10일 제1국에서는 236수 만에 백 불계로 박정환을 꺾었다.

대국 후 신진서는 "조반은 괜찮게 풀린 것 같다. 좌상귀 젓혀 끊는 수(백68·70수)를 보지 못 해 잠깐 나 빠지기도 했지만 이후 생각대로 국면이 잘 짜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결승 2국을 총평했다.

신진서의 개인 통산 12번째 우승이다. 2012년 7월 만 12세 4개월의 나이에 입단한 신진서는 맥심배, KBS바둑왕전 등 국내 기전 우승과

글로비스배(2017년), TV 바둑아시아선수권(2018년) 등 소규모 세계대회 우승 경험을 받았으며 이번에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했다. 신진서의 우승으로 한국은 지난 3년간 중국에 내줬던 LG배 우승컵을 제20회 대회 강동윤 9단의 우승 이후 4년 만에 되찾았다. 신진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 20연승에도 성공했다.

신진서는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르기 전에는 라오위안허 7단, 미위팅 9단, 쉬자양 8단, 그리고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과 중국의 일인자로 꼽히는 박정환과 커제를 제치고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만큼 '신진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신진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인 20연승에도 성공했다.

신진서는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르기 전에는 라오위안허 7단, 미위팅 9단, 쉬자양 8단, 그리고 중국 랭킹 1위인 커제 9단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과 중국의 일인자로 꼽히는 박정환과 커제를 제치고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만큼 '신진서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



시간이 멈춘듯 모두가 숨죽인 '덩크슛' 11일(현지 시간) 미국 프로농구 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LA 클리퍼스 경기에서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운데)가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는 110-103으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해 2군리그서 '로봇 심판' 시험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KBO 사무국이 올해 퓨처스(2군)리그 후반기에 '로봇 심판'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을 시험 운용한다.

KBO 사무국은 로봇심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구장에 설치해 후반기 퓨처스리그 20경기에서 테스트

하기로 하고 시범운영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KBO는 로봇 심판 테스트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심판 운영 개선안의 연장선이라며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을 거쳐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프로야구 사무국이 지난해 독립리그에서 테스트한 레이더 기반 추적 시스템과 카메라 기반 투구 추적 시스템이다.

현재 KBO리그 각 구단이 열심히 배우는 데이터 운용 회사인 트랙맨이 레이더 기반 추적 시스템의 선두 주자다.

레이더가 볼과 스트라이크를 결정

해 이를 홈 플레이트 뒤 심판이 이어폰으로 전달받아 최종 판정을 내린다.

카메라 기반 추적 시스템은 말 그대로 경기장에 레이더 장비 대신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 이를 바탕으로 볼을 추적하는 체계다.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지난해엔 트랙맨 장비를 사용했다가 올해 카메라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호크아이사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확장 이전

직영 A/S체제로 확실하게 책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대륙과 함께!

(주) 대륙기계 제주총판
(주) 두산테크 제주총판
(주) FELCO가위 제주총판
(주) 미담 제주총판

히트상품
이중칼날구조

14TRC-HS (16마력)

10TRC-H (9.5마력)

13TRC-H (14마력)

15CRS (18마력)

강력한 힘! 손쉬운 운전!!

1회 충전 5일 이상 사용
운전 조작이 너무 쉽다

MX-E350 (전동형)

MX-500DL (케도형 덤프+리프트)

MX-500 (케도형 수동)

MX-300 (엔진형)

FELCO
SWISS MADE

휴대용 전동가위
스위스 전통의 정밀기계와 컴퓨터 기술을 융합한 충전식 배터리 전동가위로서 우수한 절단 능력과 최상의 편리성 실현

FELCO 801
최대 절단경 30mm

FELCO 811
최대 절단경 42mm

FELCO 820
최대 절단경 45mm

전기종 본체를 열지 않고도 가위날 교체 가능

전기종 정부지원(보조금) 농협융자 대상기종

남원! 300m 위미농협 주유소

대륙종합농기계 확장이전 장소

예전위치

대륙종합농기계
(위미 입구 삼거리 남원 방향)

판매/AS문의 **064) 767-3430**